

3대 다발재해 절반 줄이기를 위한 업종별 워크숍

# 철강업종 안전관리 Work-shop 개최

취재 | 임재근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백일천)는 2009년 10월 30일 포스코 국제관(포항시 소재)에서 대구지방노동청 유한봉 포항지청장, 부경대학교 권오현 교수, 전국 철강업 안전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대 다발재해 절반 줄이기를 위한 철강업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분위기 확산과 정부의 3대 다발재해(협착, 전도, 추락) 절반 줄이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철강업종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재해감소 효과를 높이고, 철강업종 안전관계자들 간의 안전관리 정보 교류를 통해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다.

포스코의 원명석 국장은 '포스코에서는 STOP2활동을 도입하여 작업시작전(교대작업) 2분 동안 자신의 작업 내용과 위험상황에 대해 명상을 통한 마인드 컨트롤을 진행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국제강의 서성화 과장은 '4M 기법을 기초로 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저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 중요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산업재해 예방에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 김성진 팀장은 '철강업종에서의 재해율이 타 업종에 비해 1.8배(2008년 기준) 높은 점을 강조하고 이런 재해감소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노사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지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발표대회가 끝난 후 부경대학교 안전공학부 권오현 교수의 '철강업종의 안전관리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와 포항지청 오치룡 산업안전과장이 '철강업 재해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시간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한 철강업 안전관계자는 "동종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 안전관리 사례를 듣고 많은 부분에서 벤치마킹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워크숍이 자주 열려 정보 교류와 재해예방을 위해 동종업계 안전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전문화 정착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 제2회 건설업종 안전관리 Work-shop 개최

취재 | 임동희 기자

건설업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설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Work-Shop'이 대한산업안전협회 백일천 회장, 서울지방노동청 최준섭 청장,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1월 12일 서울 소공동에 소재하고 있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건설업의 재해예방 기법과 현장의 안전관리 사례, 그리고 향후 노동부의 건설안전 정책을 살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평이다.

이날 개최사에서 백일천 회장은 "안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투자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우리 협회는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을 활발히 진행해나가는 것과 함께 각계에서 나온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장에 접목시켜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첫 시간에는 삼성건설(주) 진규복 차장이 삼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삼성 OHSMS 등 안전관리 시스템과 주요 안전관리 활동을 소개했다. 그 뒤를 이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이정길 과장과 고동석 팀장이 각각 '건설현장들의 안전관리 및 재해사례'와 '시설물 안전관리 기법 및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대한산업안전협회 김학웅 팀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의 특성과 실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지방노동청 김학노 산업안전과장은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대형사고발생업체들의 전국 현장 및 본사를 특별점검하고, 500억원 이상 350개소 대형공사현장을 사전에 예방·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작업자회자의 배치를 유도해나가고, 근로자들의 기초안전교육이수를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노동부의 향후 건설안전 추진방향과 관련해 ▲교량 공사 및 대형기시설물 공사의 안전기준 신설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요건 강화 ▲환산재해율 개선 등을 제시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경합...

# 제9회 안전컨텐츠 경진대회 개최

취재 | 임동희 기자

지루한 강의식 안전교육이 대세를 이루던 지난 2001년,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진보한 안전교육 교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안전컨텐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국내 안전교육의 트렌드를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됐다는 평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청각을 이용한 교육교재도 안전컨텐츠 경진대회가 그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내 안전문화의 진보에 큰 힘을 보탠 '안전컨텐츠 경진대회'가 16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 교육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9회째인 올해 대회 역시 많은 관심 속에 50여종의 안전컨텐츠들이 출품되었으며, 치열한 지역예선을 거쳐 6개의 작품이 최종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백일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교안과 교재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하고 또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진행된 경진대회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직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교안을 자체개발하여 발전시킨 안전컨텐츠를 발표했다.

치열한 대전 결과 영예의 금상은 경남동부지회 김기용 차장이 '소규모 사업장 신규채용자 교육'이라는 발표로 차지했다. 은상은 '자동차업종 신규채용자 교육' 테마를 발표한 안산지회 이승영 차장에게 돌아갔으며, 동상은 울산지회 김호 기술팀장과 경기북부지회 김영환 기술팀장이 차지했다. 또 장려상은 대전충남지회 강중현 차장과 광주지회 안도영 차장이 차지했다.

행사를 진행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안전컨텐츠들은 순수 아마추어인 직원들이 잔여 근무시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구성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나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을 안전컨텐츠로 개발한 아이디어는 높이 살만하다"며 "이들 작품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다면 산업현장에 보급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위험성평가 기법 저변확대를 위한

# 제8회 위험성평가 발표대회 개최

취재 | 임재근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백일천)는 지난 1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국제회의장에서 위험성평가 기법의 저변확대와 위험성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제8회 2009 KISA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백일천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과 전국 안전관계자, 정영숙 한국노총 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총 본부장, 신창섭 한국안전학회 회장 등 기업과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위험성평가 경연대회는 안전협회에서 지난 2001년부터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정량화하여 각 위험요인별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산재예방 기법인 위험성평가의 저변 확대와 평가능력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안전협회 25개 지회를 대표하는 발표자가 지역예선을 거쳐 본 본선에는 총 6명의 본선진출자가 가려져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이날 인사말에서 백일천 회장은 "그 동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발표준비를 해 준 6명의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발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를 감소시켜 산업현장의 근로자가 생명이나 건강의 위협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사업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위험성평가는 지난 여러 해 협회에서 위험요소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위험성평가 경연대회를 보안·발전시켜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한편 발표대회에 참석한 한 안전관계자는 "이번 발표대회를 보며 최근 정부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4M 기법을 기반으로 한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도 펼쳐진다면 꼭 발표대회에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발표대회 결과 대구지회 이석훈 대리가 금상, 전남지회 허현호 계장이 은상, 경남서부지회 김석진 과장과 충북지회 박병현 차장이 동상, 인천지회 김성용 차장과 강원지회 허광희 과장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

